

## DMZ 평화순례길

2203김가영

소이산 정상에 올라가서 북한 땅을 한 눈에 담고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봤다. 우리는 현재 북한으로 갈 수도 없고 갈 수 없으니 걸을 수도 없다.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갈 수가 없다. 정말 바라보는 걸로 만족해야 할까? 눈을 감고 통일이 된 상상을 해보자 이제 그만 바라봐도 좋다 직접 가서 보면 되니까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잠깐의 상상만으로도 행복을 줄 수 있는 통일이라는 단어 우리는 통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먼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년 이상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통일했다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분단 되면 어떡하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추측만 할 뿐인데 해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추측만으로 통일을 부정하는 자세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을 했을 때 남한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첫째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서 더 많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 러시아와 철도를 연결해서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까지 마음대로 세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또 한 군사력도 강해지고,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 준다면 반쪽짜리 나라에서 힘들게 했던 일들을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는 통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신들이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이 가능하단 보장도 없고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노력한 만큼 미래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고 배우고 하는 걸 상상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도 조상들이 희생들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을 준 것처럼 우리도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 다 같이 통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눈 앞에 다가올 수 있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서 희망이 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